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 과정과 심리사회적 개입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이 지 혜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최 현 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박중독자 가족을 주제로 한 국내 문헌 13개와 국외 문헌 4개를 최종 선별, 분석하였다. 이는 도박중독자 가족에게 개입하는 실험연구와 처치개입이 없는 기술연구를 포함하였다. 선별 연구 결과를 질적으로 통합한 결과, 도박중독자 가족은 도박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부정 을 하거나 바닥을 치는 느낌을 받는 등 충격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공동의존 증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도박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감시와 감독의 형태, 지지와 관리의 형태로 나뉘게 되며 지지와 관리의 형태를 취하 는 경우 가족 개인의 삶 또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음악치유, 수용전념치 료, 심리교육 프로그램, 부부 및 커플치료, 단도박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해 도박문제가 질환임 을 인식하고, 가족 역기능이 완화되고, 문제해결 역량과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 다. 이어서 도박중독자 가족의 긍정적 심리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과 추후 과제에 대해 논 의하였다.

주요어 : 도박중독, 가족, 경험, 심리사회적 개입, 체계적 문헌고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현정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 hchoi@g.cbnu.ac.kr

도박이란 재정적인 위험과 불확실한 결과를 수반하는 우연과 기술의 게임이다(NICOS Chinese Health Coalition, 2006).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이란 도박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 친구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타자와 직장 등의 조직, 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반복하는 행동이다(강성군, 김교헌, 성한기, 2006). 도박문제를 정의하는 용어로는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 위험도박(at-risk gambling),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 문제도박(problem gambling), 습관성 도박(habitual gambling),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 강박적 도박(compulsive gambling) 등이 있다(Neal, Delfabbro, & O'Neil, 2005). 도박중독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80)에서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처음 분류되었고, 5판에서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로 분류되었다(APA, 2013).

도박문제는 도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나 피해를 이야기하며(김교헌, 권선중, 김세진, 이순목, 2011), 현재는 전 연령층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문제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8)는 도박중독 측정 도구인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를 통하여 대한민국 성인이 복권, 경마, 현금 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 등의 활동에 어느 정도 중독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에게서 5.3%의 비율이 나타났다. 이 중 중위험군은 4.2%였으며, 문제군은 1.1%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개입 시스템 미비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도박중독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조원일, 2015).

도박중독의 폐해는 개인의 우울과 공허함, 현실감 상실과 같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신용 추락 등을 경험하게 한다(이근무, 이혁구, 2019). 또한, 도박 장애를 가진 개인은 물질 사용 장애와 우울장애, 불안장애 및 성격장애와 같은 기타 정신질환과의 동반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PA, 2013). 이처럼 도박문제는 도박중독자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사회적 관계, 재정적 독립을 손상시키는데 더하여, 가족 또는 지인의 재정과 심리의 안녕을 위협함으로써 가족과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유채영, 김은혜, 2014). 이 외에도 범죄를 일으키거나 생산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건강문제이자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유채영, 김은혜, 2014). 도박중독은 경제와 고용, 재정 및 교육, 범죄, 법률,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부정 파급 효과가 매우 높다(김호진, 조원일, 2015).

이 중 가족은 도박문제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박철형, 2015). 가족 대부분은 도박중독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빚 독촉 통지서를 받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 도박 부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오랜 추궁 끝에 도박문제를 인지하게 된다. 또한 도박중독자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며 도박을 해왔다는 것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다(한영옥, 정준용, 김한우, 2011).

중독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족 구조와 태도, 기능이며(James & Gilliland, 2005), 중독자의 배우자 등 중요한 관계는 중독행위를 멈추는데 도움을 주고 중독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높여준다(김지연, 2010). 가족 회복력(resilience)은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적인

증상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독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혜민, 최송식, 2019). 또한 가족의 신념체계와 관계양상, 대처 방법, 의사소통 방식도 중독자의 회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홍정남, 이영호, 2009). 즉, 도박중독자 가족은 도박중독자가 도박중단(단도박)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단도박을 결심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도박중독자 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에 대해 기술한 연구가 있다. 도박중독자 가족은 도박문제 인지 이후 대부분 이를 부정하거나 문제를 간과하며 이로 인해 도박문제가 커져 재정적 파탄과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반복되는 도박중독의 재발로 좌절감과 무력함을 느끼는 등 일련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김성재, 강향숙, 신행호, 이주영, 2012; 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김호진, 조원일, 2017; 박철형, 2015; 박희종, 한재희, 2016).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 가족 역시 임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 도박중독자 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의 개괄을 살펴보면 배우자들이 겪는 가정폭력 경험과 이로 인한 부부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Suomi et al., 2013), 도박중독자 배우자가 재정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등 복합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Holdsworth, Nuske, Tiyce & Hing, 2013). 또한 도박중독자 부모의 경우 자기 비난과 죄책감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Heineman, 1989; Moody, 1989).

또한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최정빈, 이예스더, 윤혜영, 2017; 한영옥 등, 2011; 이경희, 2012; 홍정아, 양수, 2013; Boyd & Bolen, 1970; Rychtarik & McGillicuddy, 2006; Tremblay et al., 2018)도 일부 발견되고, 도박중독자 가족 자조 모임(이하 Gam-Anon)에서 관찰되는 변화 과정을 기술한 연구도 있다(심진현, 신영철, 최삼옥, 민경준, 방석찬, 김영훈 2006; 이지혜, 최은희, 김진숙, 2009).

도박중독 당사자에 관한 연구는 축적된 데 비하여(김형석, 박상규, 2015; 유승훈, 최이순, 김홍석, 2013; 윤명숙, 채완순, 2010), 도박중독자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박중독의 문제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과 관계 등 미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김호진, 조원일, 2015; 유채영, 김은혜, 201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이해는 중독자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의 건강과 기능 회복에도 중요하다.

도박 중독자 가족 관련하여 국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도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족이 도박 중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Kourgiantakis, Saint-Jacques, Tremblay, 2013), 또 다른 문헌고찰은 도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족을 위한 개입을 살펴보았으나 체계적 고찰에 해당하지는 않았다(Kalischuk, Nowatzki, Cardwell, Klein, & Solowoniuk, 2006). 국내 연구로 김진숙 등(2011)의 연구에서 연구 설명을 위해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문헌고찰을 짧게 기술하였으나, 배우자의 공동의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즉, 국내외 문헌을 포함하여, 도박중독자 가족이 겪는 경험의 과정과 이를 위한

개입의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검토된 도박중독자 가족이 도박문제로 인해 겪는 경험 과정과 그 경로를 확인하고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방법으로 관련된 연구 실태와 더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란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하여 최선의 사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총 종합하는 연구 방법이다. 미리 계획된 포함과 배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헌 검색과 선택을 하는 과정이며, 선택한 문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및 연구 결과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김수영 등, 2018). 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존에 축적되어온 연구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 연구 방향과 동시에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유용하다(성혜연, 이성규 2019).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박중독자 가족에 관한 문헌을 살피고 추후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까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 법

문헌 검색 기준

미국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IOM], 2011)에서 출판한 체계적 문헌 고찰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에 대한 검색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9년 8월 검색하였으며 도박중독, 도박장애, 도박문제 등 나라마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들로 인해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어와 영어 논문으

로 제한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RISS와 DBpia, KISS를 활용하였으며 국외 논문은 PsyARTICLES와 PubMed를 활용하였다. 선별 포함 기준으로 참여자(participants, P), 개입(Intervention, I), 비교(comparison, C), 결과(outcomes, O), 연구 유형(type of study, T)으로 구성된 PICOT 기준에 따랐다(IOM, 2011).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 검색 시 동일한 검색어를 사용하기에 ‘도박중독’을 정의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어 각각 국내외 검색어를 달리 설정하였다. 국내논문의 경우 PICOT에서 연구대상(P)으로는 ‘도박중독 OR 병적도박’으로 설정하여 설정된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장들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개입(I)으로는 다양한 치료 개입을 반영하기 위해 ‘심리상담치료 OR 프로그램 OR 자조 모임 OR 단도박 모임’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 개입(C)은 모든 비교로 설정하였다. 개입 결과(O)로는 ‘불안 OR 우울감 소 OR 공동의존 감소’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유형(T)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 경험 연구를 포함하였고 1명의 참여자를 관찰한 사례 연구는 제외하였다. 연구 기간은 단도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익명의 단도박 자조 모임(Gamblers Anonymous)이 처음 시작된 해를 시작으로 ‘1957-2019’로 하였다.

국외 논문의 경우 연구대상(P)을 설정할 때 ‘도박중독’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포괄적이어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Gambler*’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개입(I)으로는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모든 연구들 중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추출하기 위해 ‘Family OR Spouse OR Partner OR Caregiver OR Parents’로 설정하였으며 비교 개입(C)은 모든 비교로 두었다. 개입 결과(O)로는 공동의존과 불안 우울 등의 개념을 탐지하기 위해 ‘anxiety OR

depression OR dependence'로 설정하였다. 연구 유형(T)과 연구 기간은 국내연구 검색과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문헌 선별을 위해 석사 과정생 3명이 앞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이어서 PICOT를 바탕으로 연구 제목에 따라 1차선별, 초록에 따라 2차선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을 읽고 최종 선별을 하였다. 제목 및 초록에서 선별과 배제가 어려운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3명의 연구진이 선별 과정에서 교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문헌 평가

방법의 엄격성을 갖춘 연구를 선별하기 위하여 문헌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혼재 방법 평가 도구 2018(Mixed Methods Appraisal Tool version 2018, MMAT, Hong, Q. N. et al., 2018)을 사용하였다. 이는 질적, 양적, 혼재 방법 연구를 포함한 복잡한 체계적 문헌 검토의 방법적 엄격성 평가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른 도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혼재 방법 연구의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Hong, Q. N. et al., 2018).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 1저자와 석사졸업생 연구자 두 명이 각기 MMAT를 활용하여 선별한 연구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후 교차검토 하였고, 최종으로 임상심리 전공 교수와의 논의 및 교차검토를 통해 평가를 통합하였다.

자료 분석

우선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였고, 선별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자 6명과 임상심리

학 전공 교수가 분석 과정에 참여하였다. 질적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적 종합을 하기 보다는 질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질적 통합은 처치개입이 없이 현상을 기술한 기술연구와 처치개입을 하여 결과를 도출, 집단 비교한 실험연구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기술연구는 문헌에서 발견되는 주요 진술을 개념 형성하여 통합하였고, 실험연구는 개입의 주요 효과에 관한 개념을 구성하여 통합하였다.

우선 연구자 한 명이 최종 선별한 모든 연구를 읽고 핵심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 조직하여 진술을 포괄하는 하위 개념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 이를 토대로 3명의 연구자가 하위 개념의 구성을 교차 검토하면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자 및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와의 회의를 통해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구성하였고, 상위 개념을 통합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 과

문헌 선별 과정

그림 1에 국내 문헌과 국외 문헌의 선택과 배제 과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문헌 KISS에서 총 104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DBpia에서는 2,514개, RISS에서는 519개가 검색되었다. 총 3,137개 문헌에서 제목만 보고 확인하여 추출한 논문은 총 24개였으며, 24개의 논문 중 가족에 대한 개입이 아닌 7개의 문헌을 제외하여 총 17개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17개의 논문의 초록과 전체 내용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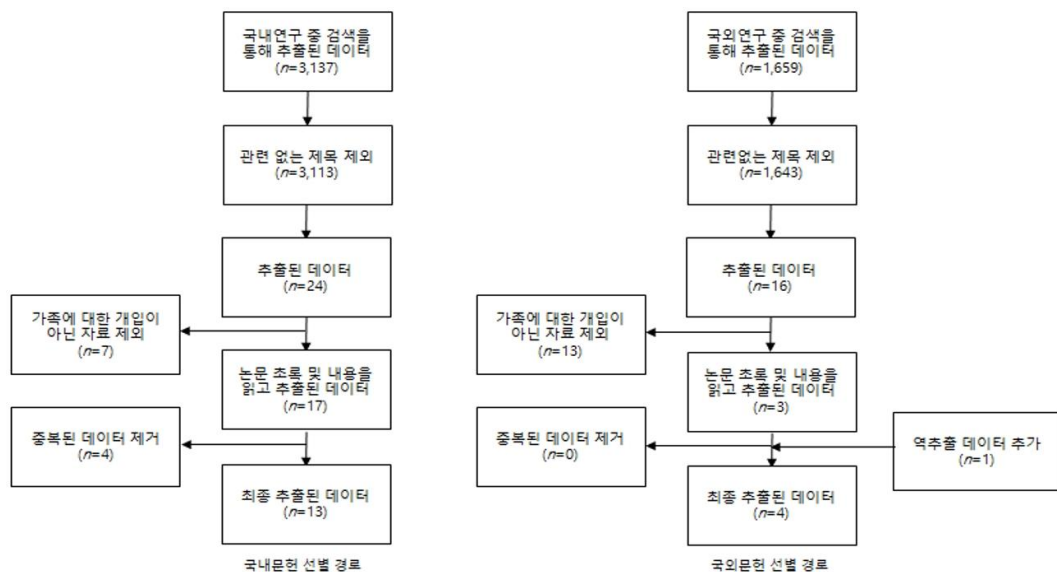


그림 1. 문헌의 선별 경로

중복되는 4개의 문헌을 배제하여 최종 13개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국외 PsyARTICLES에서는 45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PubMed에서는 1,614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총 1,659개 문헌에서 제목만 보고 확인하여 추출한 문헌은 총 16개였으며 배제 문헌은 가족에 대한 개입이 아니거나 사례연구였다. 또한 도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발견되었지만, 도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정서적 증상을 기술하는 연구는 가족의 경험 과정이나 대처경로를 기술하지 않아 배제하였다. 또한 가족이 도박중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배제하였으며, 미출판 학위 논문을 배제, 심사 후 출판 연구만 포함하였다. 2차 확인 과정에서 초록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자 가족이 아닌 도박중독자에 대한 문헌은 배제하였으며 총 3개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국내와 국외 문헌 검토 중 인용한 관련 국외 문헌을 찾아 역추

출 하여 1개의 데이터를 추가하였으며 최종 4개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문헌의 일반 특성

국내외 포함 총 17개의 문헌을 선별하였다. 국내 자료는 13개(76%)였고, 국외 자료 중 3개가 미국(18%), 1개가 캐나다(6%) 연구였다. 출판 시기를 확인해보면, 2015년이 4개(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 2011년, 2012년, 2017년에 발간된 연구가 각 2개(각 13%)로 많았고, 1970년, 1985년, 2009년, 2013년, 2016년이 각 1개(각 6%)였다.

연구 유형에 따라 구분했을 때 가족에게 프로그램 개입 효과를 살핀 실험연구가 8개(47%) 개입이 없는 기술연구가 9개(53%)였다. 처치 개입이 있는 8개 실험연구 중 7개(87%) 연구가 비교집단이 존재하였으며, 사전-사후 비교 연구였다. 이 중 음악치유 1개(14%), 수용전념치료 1개(14%), Gamblers anonymous(이하

Gam-Anon) 참여 1개(14%), 심리교육 프로그램 2개(29%), 부부 및 커플 치료가 2개(29%)가 포함되었다. 비교집단이 없는 연구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1개(14%)였다.

처치개입이 없는 기술연구 9개 중 2개(22%)의 연구가 비교집단이 존재하였으며 7개(78%)는 비교집단이 없는 연구였다. 비교집단이 있는 경우는 두 집단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였다. 9개의 연구 중 2개(22%)는 Gam-Anon 참여자로 연구된 자료였다.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에 따라 구분했을 때 전체 연구 17개 중 질적 연구가 8개(47%), 양적 연구는 7개(41%),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는 2개(12%)였다.

문헌의 연구 방법 엄격성 평가

MMAT 평가 결과는 부록 3, 4에 제시하였다. 기술연구 9개 전부가 선별 질문의 모든 문항에 ‘그렇다’라고 평가되어 연구 유형에 따른 방법 평가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8개(89%)의 연구 중 3개의 연구가 자료수집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그렇다’라고 평가되었다. 1개(11%)의 양적기술 연구는 표본대표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평가되었으며 이 결과를 고려하여 문헌고찰 해석에 참고하였다.

실험연구 8개 중 7개(88%)가 선별 질문 모든 문항에 ‘그렇다’라고 평가되어 연구 유형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8개 중 1개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모든 문항에 ‘그렇다’라고 평가되었다. 5개의 사전-사후 설계 연구 중 1개의 연구는 선별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되었다. 2개는 연구 기간 중 중재가 의도한대로 개입되었는지를 묻는 개입의 실험

정도 문항을 제외하고 ‘그렇다’로 평가된 문항이 많았지만 다른 2개의 연구는 대부분의 문항에 ‘아니다’ 또는 ‘알 수 없음’으로 평가되었다.

1개의 무선통제설계의 연구 또한 무선할당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그렇다’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1개의 혼재연구의 경우 방법의 적절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아니오’로 평가되었다. 기술연구에 비해 실험연구의 엄격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그렇다’로 평가된 문항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연구 방법상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헌고찰 결과에 참고하였다.

도박중독자 가족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관한 기술연구 종합

도출된 17개의 자료에서 실험연구와 기술연구를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연구 결과 종합에 활용된 하위, 상위 개념 및 주제형성에 관한 표를 부록 1과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기술연구 9개를 종합한 결과, 가족의 도박 문제 인지 이후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변화 과정으로는 ‘가족의 도박사실에 충격을 받음’, ‘가족의 도박문제로 고군분투함’, ‘도박을 문제로 인지함’, ‘가족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함’,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됨’의 5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가족의 도박사실에 충격을 받음’에는 가족들이 도박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나타나는 ‘부정하기’와 ‘바닥치기’라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겪는 첫 번째 과정은 ‘부정하기’였으며 이 과정에는 도박중독자 가족들 대부분이 도박사실을 알게 된 후 심각

성을 간과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김성재 등, 2012; 김호진, 조원일, 2017). 또한 허물을 덮고 문제를 부정한다고 보았으며(김성재 등, 2012), 도박중독자가 자녀인 경우 도박행위를 ‘젊음의 열정’으로 치부하거나(김호진, 조원일, 2015) 남편인 경우 ‘오락 또는 투자’ 정도로 생각하였다(박희중, 한재희, 2016). 이어서 이들은 멈추지 않는 가족의 도박문제로 인해 ‘바닥치기’(이지혜 등, 2009) 경험을 하게 된다. ‘바닥치기’ 경험이란 도박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을 겪은 후 가족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서적 고통을 동반하는 경험을 말한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은 바닥치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였으며(김진숙 등, 2011; 김진숙, 2015), 경제적인 파탄과 한계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김호진, 조원일,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이지혜 등, 2009) 죄책감, 증오, 분노 등이 극한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김성재 등, 2012; 박철형, 2015).

다음 과정인 ‘가족의 도박문제로 고군분투함’에는 ‘공동의존’과 ‘정서적 고통’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공동의존’이란 가족이 도박중독자의 행동 특성을 지속시키거나 조절하려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인 의존 관계와 삶의 형태를 뜻한다. ‘공동의존’에서는 도박중독자와 함께 ‘공범’이 되거나, 도박중독자의 삶을 감시하고, 지나치게 헌신하는 등 가족관계의 역기능이 심화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공동의존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동반중독자(coaddict)’, ‘동반의존자(codependent)’, ‘구출자(rescuer)’로 명명하기도 했다(고병인, 2004). 도박중독자 가족은 도박중독자의 관리자가 되어 매 순간 감시하

거나(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가족 스스로가 도박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지혜 등, 2009). 또한 반대로,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역기능적으로 관계하며(김진숙 등, 2011; 김진숙,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도박중독자와 함께 비난을 받는 공범이 된다고 보았다(김성재 등, 2012).

‘정서적 고통’이란 도박중독자와의 계속되는 고군분투로 인해 분노와 죄책감, 회피 등 가족들이 지속해서 겪는 모든 정서적 고통을 이야기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실망감과 배신감, 증오감, 충격, 우울감, 금전적인 스트레스, 절망감(김진숙 등, 2011; 김진숙, 2015; 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심진현, 신영철, 최삼욱, 민경준, 방석찬, 김영훈, 2006; 이지혜 등, 2009)을 호소하였으며 심한 경우 죽음과 살인에 대해 생각하였다(김호진, 조원일,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또한 도박중독자 부모의 경우에는 자책감과 죄책감, 모성에 고갈(김성재 등, 2012) 등을 보였다. ‘바닥치기’와 유사하지만 ‘바닥치기’ 정서의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함에 따른 고통이라면 ‘정서적 고통’은 그 후에 지속적으로 공동의존과 동시에 도박중독자와 생활을 유지하면서 겪는 고통이라 할 수 있다.

‘도박을 문제로 인지함’에서는 도박중독자의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시도’와 ‘정보 획득’, ‘치유기관 탐색’의 하위 개념을 포함하였다. ‘문제해결 시도’는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스스로가 생각해 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박중독자의 추심을 막기 위해 재정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김진숙, 2015; 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꾸준히 감시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으며(김성재, 강향숙, 신행호, 이주

영, 2012), 반대로 도박중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맞불전략’의 경우도 있었다(김진숙,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또한, 오히려 도박중독자를 돕는 역할을 포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였다(이지혜 등, 2009).

‘정보획득’ 과정은 도박에 대한 정보탐색으로 인해 도박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증진되는 과정이다.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 하였지만 반복되는 재발로 인해 인터넷 검색과 지인 등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박중독이 질병임을 인식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관을 알게 되며(김성재 등, 2012; 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박철형, 2015), 재정과 관련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 추심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게 된다(박희중, 한재희, 2016).

‘치유기관 탐색’에서 가족들은 도박과 관련한 치유기관들을 탐색하고 치유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김진숙 등, 2011; 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이 과정에서는 도박중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박중독자를 전문치료 기관(박철형,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및 단도박 자조 모임에 참여시킨다(이지혜 등, 2009).

이어서 ‘가족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함’ 과정에서는 ‘감시와 감독’의 자세를 취하거나 ‘지지와 관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시와 감독’은 도박중독이 질병임을 인식하고 나서, 또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도박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감시하고 의심하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감시와 감독’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여전히 도박중독자의 도박 사실을 상담자나 다른 가족에게

숨겼으며, 도박으로 인해 발생 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김호진, 조원일, 2017), 자녀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감독하였다.

‘지지와 관리’는 투명하고 꾸준한 재정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은 ‘감시와 감독’의 자세를 취하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지지와 관리’의 자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으며(김성재 등, 2012; 김호진, 조원일, 2015, 2017), 치유 과정에 들어오면서 둘 중 하나의 방법만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철형,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이지혜 등, 2009). ‘지지와 관리’에서는 감시와 감독이 아닌 정서적 지지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원해 주며(김호진, 조원일, 2017),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재정관리 등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한다(김호진, 조원일, 2015, 박철형, 2015, 박희중, 한재희, 2016).

마지막으로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됨’의 과정에서는 ‘문제전환’과 ‘자신의 삶 고취’가 포함된다. ‘문제전환’은 가족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도박중독자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김진숙 등, 2011; 김호진, 조원일, 2015; 박철형, 2015). 이와 동시에 도박중독자를 돕는 구원자에서 구도자(求道者)의 역할’을 취하게 된다(이지혜 등, 2009).

‘자신의 삶 고취’에서는 도박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박중독자가 아닌 자신의 생애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등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도박중독자 가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해석한다(김진숙 등, 2011). 또한, 가치관 변화를 통해 평안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박철형, 2015), 중독자의

가족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삶과 모습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등, 2009).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발견한 문헌은 소수로(박철형, 2015; 이지혜 등, 2009), Gam-Anon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족 참여자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제시된 과정 중 ‘지지와 관리’의 자세를 취한 가족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여전히 도박중독자와 살아가지만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계를 구분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도박중독자 가족의 처치 후 변화 양상에 관한 실험연구 종합

8개의 실험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박중독자 가족에게 개입 후 나타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입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결과, ‘문제 인식’, ‘가족 역기능 완화’, ‘문제해결 역량 증진’, ‘삶에 대한 역량강화’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문제인식’은 도박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험이며 개입을 통해 도박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병적도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며 도박 재발 시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 수준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한영옥 등, 2011; 이경희, 2012). 또한, 질병으로서 도박중독문제에 가족이 함께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Tremblay et al., 2018). 가족교육 프로그램(한영옥 등, 2011; 홍정아, 양수, 2013), 수용전념치료(이경희, 2012), 커플치료(Tremblay et al., 2018)에서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역기능 완화’라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이에는 ‘도박 상황으로부터의 분리’

와 ‘부적정서 완화’가 포함되었다. ‘도박 상황으로부터의 분리’는 수용전념치료에서 도박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벗어나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알아차리고 ‘인지적 탈융합’ 달성을 통해 가능하였다(이경희, 2012). 마찬가지로 Gam-Anon에 참여하여 도박중독자의 배우자라는 역할에서 분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Tepperman, 1985).

가족교육 프로그램 2개와 Gam-Anon 집단 프로그램,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대처기술훈련 프로그램, 커플치료 프로그램, 정신역동 기반 집단치료 참여를 통해서 ‘부적정서 완화’를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적 소진이 완화되고(한영옥 등, 2011),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가 증가되며, 우울과 분노감 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최정빈 등, 2017; 한영옥 등, 2011; 홍정아, 양수, 2013; Boyd & Bolen, 1970; Robert & Neil 2006; Tepperman, 1985; Tremblay et al., 2018).

또 다른 효과는 ‘문제해결 역량 증진’이었다. 이 개념 안에는 ‘가족/의사소통 기능’의 증진, ‘제도적 지식’ 및 ‘문제해결 기술’의 증가 효과가 포함되었다. 적신역동 기반 집단치료, 커플 치료를 통해 ‘가족/의사소통 기능’ 면에서 의사소통기술이 향상하였으며 결혼갈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oyd & Bolen, 1970; Tremblay et al., 2018). Gam-Anon을 통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였으며(Tepperman, 1985),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가족에게 도박사실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걱정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한영옥 등, 2011).

이어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적 지식’ 측면에서 채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이 감소하였으며, 추심에 대한 대

처방법과, 재정관리 방법, 워크아웃 제도 등 제도적 기술을 습득하였다(한영옥 등, 2011).

대처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Gam-Anon의 참여는 ‘문제해결 기술 / 역량증진’ 부분에서 인지 및 행동적 대처 기술이 상승하고 더욱 적응력 있는 방어 기술을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Boyd & Bolen, 1970; Robert & Neil 2006).

‘삶에 대한 역량강화’에는 ‘문제치환’과 ‘자기성장’이 포함되었다. 수용전념치료를 통한 ‘문제치환’에서는 도박중독자의 단도박이 더 이상 가족 삶의 목표가 아니게 되며 도박중독자와 분리되어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이경희, 2012). 또한 Gam-Anon 참여를 통해서 가족은 도박중독자보다 자기 실존적 정체성에 대해 더욱 걱정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Tepperman, 1985).

수용전념치료는 도박중독자 가족의 ‘자기성장’과도 관련이 있었다(이경희, 2012).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념적 행동 안에서 수용과 알아차림으로 생활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가 도박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생활 전반으로 전이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성찰 과정에 대해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로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197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출판된 총 17개의 실증연구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박중독자 가족에게 심리학적 프로그램 개입을 한 실험연구 8개와 도박중독자 가족 경험에 관한 기술연구

9개를 발견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종합하였다.

기술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서 방법의 타당성이 양호하였다. 기술연구를 통합한 결과, 도박중독자 가족이 사건을 인지하면서 변화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제시되는 ‘문제해결 시도’에서 가족들은 공동의존과 정서적 고통을 겪은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시도들을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 없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도박중독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단속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재정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어 단도박의 약속을 받아 내고, 문제를 대신 수습해주는 등의 효과적이지 않은 시도들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박중독자의 말을 믿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돈을 갚아준 후 얼마의 기간 동안은 도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을 취함에도 재발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도박중독자를 보며 외부자원을 탐색하는 ‘정보 획득’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도움을 받고자 정보를 탐색하게 되며 도박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도박중독자’라는 인식과 도박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도박문제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치유기관 등 외부자원에 대해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된다.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가족들은 도박자에게 개입하는 방법을 ‘관리와 지지’의 자세로 바꾸기도 하였으며 여전히 ‘감시와 감독’의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였는데, ‘관리와 지지’의 자세를 취한 도박중독자의 가족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자세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연구는 기술연구에 비해 대체로 방법의 타당성이 다소 저하된 양상이었다. 실험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커플치료는 상호 이해와 상호지지 증가에 유용하였으며 음악치료는 긍정 정서 및 사고의 증가,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우울과 분노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상승하는 것에 유용하였으며 중독에 대한 지식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게 되는 효과를 보였다. 수용전념치료는 가족이 도박자가 아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지금-여기를 살아가는데 유용하였으며, 비구조화된 정신역동 기반 집단치료의 경우 적응력 있는 방어기술 생성과 파괴적 및 우울 사고 감소, 대인관계 활동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am-Anon의 참여는 우울감의 감소뿐만 아니라 가족이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유용하였다.

기술 및 실험 연구를 연결 지어 보았을 때 도박중독자 가족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식, 더 나아가 가족들이 도박중독 문제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삶을 되찾도록 돕는 중요성이 공통으로 존재하였다.

중독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도박행동을 반복하는 도박자의 행동 때문에 가족들은 절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박과 도박 중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Heineman(1987)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에 대해 중독이 병이며 만성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담과 교육의 목표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목표는 도박중독자의 가

족에 대한 개입 목표와도 같다(홍정아, 양수, 2013). 또한 도박 빚 등의 재정문제는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며 자신과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재정 상담이나 법률 자문도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으로서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게 위해서는 가족이 먼저 중독을 이해하고 평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에 대한 이해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습득이 가능하였지만 평안과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은 일련의 경험과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함은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실존’과 관련 있었다. 실존적인 삶에서 실존이란 지금-여기의 존재를 포함하며(김수환, 2016), 개인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발전을 위해 고통 또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Krill, 1996). 이는 도박중독자 가족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가 회복하는데도 의미 있는 개념으로 보고되었다(상종열, 차명희, 2018; 강준혁, 이혁구, 2019). 어떠한 개입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실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을 때, Gam-Anon과 수용전념치료가 있었다. Gam-Anon과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박중독자 가족의 실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Gam-Anon과 수용전념치료 모두 자신에게 발생하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판단적 태도를 중요시 하였으며 둘째, 자신이 도박문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취할지 재설정하였다. 셋째, Gam-Anon과 수용전념치료 모두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실천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은 추후 도박중독

자 가족의 실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 홍정아, 양수(2013)의 행동주의 가족 교육은 Gam-Anon 참여 보다 가족들의 우울과 상태 분노를 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통한 병적 도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인식변화, 대처능력 획득을 도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 또한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논문 선별 시 도박중독을 정의하는 단어를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추출, 정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어와 한국어로 한정하였다. 비영어권, 비한국어 연구, 특히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아시아권 언어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의 교차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의 질적 종합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자의 편향이나 주관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험 연구 자료의 한계로 효과 크기를 검토하지 못하여 해당 개입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검토할 수 없다. 개입 연구가 소수이고 방법적 엄격성이 저하된 측면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추후 도박중독자 가족 개입 연구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메타 분석을 통해 효과크기 검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도박중독자 가족의 심리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질적 연구는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측정도구가 부재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한계 속에서 기존 연구의 성과를 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도박중독자 가족이 도박중독자의 치료와 단도박 유지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삶의 고통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박 중독자 가족에게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활발한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이 겪는 경험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강성균, 김교현, 성한기 (2006). 문제성 도박 식별을 위한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25-241.
- 강준혁, 이혁구 (2019).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54, 185-219.
- 공정식 (2007). 상습도박 중독자들의 심리와 처우. 한국범죄심리연구, 3, 3-28.
- 권혜민, 최송식 (2019).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태계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26(3), 103-134.
- 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이순목 (2011). 저수준 도박행동 연구를 위한 개념화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99-625.
- 김지연 (2010). 알코올의존자 가족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병인 (2004). 중독자 가정의 회복사역: 동반 의존된 가족을 위한 회복사역.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7, 76-99.
- 김미선 (2011).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 검토. 한국중독범죄학회, 1(1), 1-21.
- 김성재, 강향숙, 신행호, 이주영 (2012). 미혼 남성 도박 중독자의 어머니 경험. 대한스트레스 학회, 20(4), 331-345.
-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서혜선, 손희정, 신채민, 이윤재, 장보형, 허대석 (2018).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NECA 연구방법 시리즈, 1-287.
- 김수환 (2016). 실존주의 관점에서 구성된 사회복지실천의 준거틀. 사회과학연구, 32(4), 129-153.
- 김진숙 (2015). 문제성 도박자 여성배우자들의 공동의존경험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89-114.
- 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2(1), 83-115.
- 김형석, 박상규 (2015). 도박중독자의 GA참여를 통한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11-138.
- 김호진, 조원일 (2015). 퇴행적 인간발달에 있어 가족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도박중독자 회복과정에서의 부모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발달장애학회, 19(4), 123-148.
- 김호진, 조원일 (2017). 도박중독 자녀의 회복 과정에 있어 부모 역할의 다의성 -부모와 자녀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1(3), 91-126.
- 도박중독자가족모임(Gam-Anon)[웹사이트]. URL: <http://www.dandobakfamily.kr/>
- 박철형 (2015).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변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6(1), 29-58.
- 박현지, 권해수 (2019). ACT에 기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가치발견 및 전념행동 촉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7(2), 139-149.
- 박희중, 한재희 (2016). 도박중독자 아내가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89-13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 상종열, 차명희 (2018). ‘실존적 자기조절 (existential self-regulation)’ 측면에서 본 여성노인도박자의 삶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8(3), 607-625.
- 성혜연, 이성규 (2019).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4(4), 5-33.
- 심진현, 신영철, 최삼옥, 민경준, 방석찬, 김영훈 (2006). 병적 도박 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0(2), 99-103.
- 오은혜, 조용래 (2014). 인지적 탈융합 처리와 심리적 유연성이 대학생의 발표불안 반응 및 주의 편향 감소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 341-364.
- 이경희 (2012).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정서적 경험, 공동의존 경향 및 수용-전념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명상치유학회지, 3(1), 1-29.
- 이근무, 유숙경, 황수연 (2020). 도박 중독자 여성 배우자들의 공동의존 경험과 회복자 -Charmaz의 구성주의 근거이론 접근-,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11(1), 137-181.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

- 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99-414.
- 유승훈, 최이순, 김홍석 (2013). 남성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751-759.
- 유채영, 김은혜 (2014). 문제도박 경로에 대한 탐색연구: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음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5(4), 317-341.
- 윤명숙, 채완순 (2010).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한국사회복지학*, 62(3), 271-297.
- 이근무, 이혁구 (2019). 도박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 대한 중단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1(3), 31-54.
- 이지혜, 최은희, 김진숙 (2009). ‘단도박 가족모임’에서의 상생적 성찰 과정. *교육인류학연구*, 12(1), 233-262.
- 최정빈, 이에스더, 윤혜영 (2017). 도박중독자 가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2(1), 27-46.
- 한영옥, 정준용, 김한우 (2011). 병적 도박자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263-277.
- 홍정남, 이영호 (2009). 가족탄력성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6(2), 9-26.
- 홍정아, 양수 (2013). 병적도박자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한국간호과학회*, 43(4), 497-50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oyd, W.H. & Bolen, D.W. (1970). The compulsive gambler and spouse in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20(1), 77-90.
- Heineman M (1989). Parents of male compulsive gamblers; Clinical Issues/treatment approach. *J. Gambling Behavior*, 5, 321-354.
- Holdsworth, L., Nuske, E., Tiyce, M., & Hing, N. (2013). Impacts of Gambling Problems on Partners: Partners Interpretations. *Asian Journal of Gambling Issues and Public Health*, 3(11), 1-14.
- Hooper, N., & McHugh, L. (2013). Cognitive defusion versus thought distraction in the mitig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The Psychological Record*, 63, 209-218.
- Institute of Medicine. (2011). Standards for synthesizing the body of evidence. In J. Eden, L. Levit, A. Berg & S. Morton (Eds.), *Finding what works in health care: Standards for systematic reviews* (pp. 155-194).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James, R. K., & Gilliland, B. E. (2005).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5th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Kalischuk, R. G., Nowatzki, N., Cardwell, K., Klein, K., & Solowoniuk, J. (2006). Problem gambling and its impact on familie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 6, 31-61.
- Kourgiantakis, T., Saint-Jacques, M.-C., & Tremblay, J. (2013). Problem gambling and famili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13(4), 353-372.
- Krill, D. F. (1996). Existential Social Work. In F. J. Turner(ed.), *Social Work Treatment* (pp. 250-281). NewYork: The Free Press.
- Mathews, M., & Volberg, R. (2013). Impact of problem gambling on financial, emotional and social well-being of Singaporean familie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3, 127-140.
- Moody, G. (1989). Parents of young gamblers. *J. Gambling Behavior*, 5, 313-333.
- Neal, P. N., Delfabbro, P. H., & O'Neil, M. G. (2005). Problem gambling and harm: Towards a national definition.
- NICOS Chinese Health Coalition (2006). Problem gambling technical assistance & training project.
- Rychtarik, R. G. & McGillicuddy, N. B. (2006). Preliminary evaluation of a coping skills training program for those with a pathological-gambling partner. *Journal of Gambling*, 22(2), 165-178.
- Suomi. A., Jackson, A. C., Dowling, N. A., Lavis, T., Patford, J., Thomas, S. A., & Cockman, S. (2013). Problem Gambling and Family Violence: Family Member Reports of Prevalence, Family Impacts and Family Coping. *Asian Journal of Gambling Issues and Public Health*, 3(1), 1-15.
- Pluye, P., Robert, E., Cargo, M., Bartlett, G., O'cathain, A., Griffiths, F., ... & Rousseau, M. C. (2011). Proposal: A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for systematic mixed studies reviews. *Montréal: McGill University*, 2, 1-8.
- Pluye, P., & Hong, Q. N. (2014). Combining the power of stories and the power of numbers: mixed methods research and mixed studies review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5, 29-45.
- Hong, Q. N., Fàbregues, S., Bartlett, G., Boardman, F., Cargo, M., Dagenais, P., ... & Pluye, P. (2018). The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 version 2018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Education for Information*, 34(4), 285-291.
- Tepperman, J. H. (1985). The effectiveness of short-term group therapy upon the pathological gambler and wife.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1(2), 119-130.
- Tremblay, J., Dufour, M., Bertrand, K., Blanchette-Martin, N., Ferland, F., Savard, A. C., ... & Côté, M. (2018). The Experience of Couples in the Process of Treatment of Pathological Gambling: Couple vs. Individual Therapy. *Frontiers in Psychology*. 24(8), 1-14.
- 원고접수일 : 2020. 11. 21.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2. 05.
게재결정일 : 2021. 02. 06.

A systematic review of the experience process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among families of addicted gamblers

Ji-Hye Lee

Hyunj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perience process among families of addicted gamblers, an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13 domestic and 4 overseas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Studies included experimental studies on psychosocial interventions and descriptive studies. By qualitative integration of selected studies, families seemed to resort to denial or crash down as their first response, which led to emotional pain and co-dependence. They then, recognized the gambling as a problem that they attempted to solve in various ways, such as keeping the gambler under surveillance or providing support and management. When support and management were provided, the life of the individual family also showed growth and change. Through participation in music heal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sycho-education, couples therapy, and gambling anonymous groups, families became aware that gambling is an illness and family dysfunction was alleviated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and self-capacities were strengthened. Factor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in families with gambling addiction and further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addiction, family, experience, psychosocial intervention, systematic review

합계 1. 기술연구개발비

상위개념	가족의 도박사실에 충격을 받음	가족의 도박문제에 고군분투함	도박을 문제로서 인지함	가족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함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감						
하위개념	부정하기	바닥치기	공동의존	정서적 고통	문제해결 시도	정보회득	전문기관 탐색	감시와 감독	치지와 관리	문제전환	자신의 삶 고취
김희진 (2017)	가족의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부정하거나 단지 한계를 느끼면서 실수였다 라고 치부하며 문제를 정서적 고통을 동반함 관제와 삶의 형태	중독자의 행동 특성을 지속시키거나 조절 시키려는 것과 같은 부정용격인 관제와 삶의 형태	가족과의 계속되는 고군분투로 인해 스스로가 생각한 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가족의 도박사실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한 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도박중독에 대한 정보 탐색으로 인해 도박이 질병이라는 인식 증진	대위반제 등을 통해 가족의 도박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의심하고 감시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방안 채택	투명한 재정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 채택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아닌 자신의 생애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실존구조와 연계하는 등 성장을 도모			
1	김호진 (2017)	-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 자녀의 말을 더 믿고 싶음	- 자녀의 재출발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자녀에게 위 해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재정문 제를 해결해 줄	- 심방전과 배신감 - 출제과 분노로 인한 폭력 행사 - 자책감 - 연민	- 자녀의 재출발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자녀에게 위 해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재정문 제를 해결해 줄	- 인터넷을 찾아보기나 주위 지인들에게서 도박이 질병이라는 정보회득	- 치유과정에 참여하면서 도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돕길	- 관리를 받거나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해줄	- 도박을 당사자들의 일탈 문제로 보았 던 시각에서 자신의 존재 문제로 인식함	- 생애의미 재구성: 낙인에 영향 받기보다 자기주관적 삶을 주체적으로 해석 - 생애 경험 재구성	
2	김진숙 (2011)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 음오의 극한	- 피투성이 공생: 역설적 보상 기대 - 맹목적 이해	-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음오 - 가족되는 절망과 회피 사고: 마술적 사고에 빠짐	- 외도 및 배우자 협박 - 자녀보호 - 심리적 생존 전략 구사	- 전문가의 도움 받음					
3	김진숙 (2015)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 아내로서 역할을 하려고 함	- 남편과 동일시 - 공동의존 단계	- 극도의 절망감과 분노 - 배신감 등	- 대위반제 - 문제해결에 대한 수단 - 대리인 역할						
4	김성재 (2012)	- 허물을 눈감고 바라봄 - 자책감 및 죄책감 - 속아도 믿고 싶음	- 아들과 함께 공범이 됨	- 부모로서 자책감 - 재발로 인한 절망	- 감시하고 단속함	- 회복을 위해 전력투입함					

부록 1. 기술연구 질적 통합

(계속 1)

상위개념	가족의 도박사실에 충격을 받음	가족의 도박문제로 고군분투함	도박을 문제로서 인지함	가족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함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감						
하위개념	부정하기	바다치기	공동의존	정서적 고통	문제해결 시도	정보회득	전문기관 탐색	감시와 감독	지지와 관리	문제전환	자신의 삶 고쳐
	가족의 도박문제에 대해 부정하거나 단지 실수였다 라고 치부하며 문제를 간과함.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재정적 파탄과 정서적 고통을 동반함	중독자의 행동 특성을 지속시키거나 조절 시키려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인 관제와 삶의 형태	도박중독자 가족과의 계속되는 고군분투로 인해 분노, 배신감, 죄책감 등 지속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고통	가족의 도박사실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한 문제를 해결	도박중독에 대한 정보 탐색으로 인해 도박이 질병이라는 인식 증진	질병 인식 후 치유를 위해 전문치료 기관 및 단도박 모임에 참여함	대외변제 등을 통해 가족의 도박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의심하고 감시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방안 채택	투명한 재정 관리와 정서적 지지로 인해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 채택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아닌 생애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실존구조와 연계하는 등 성장을 도모	
5	김호진 (2015)	- 젊음의 열정으로 치부 - 심각성을 간과함	- 가장 전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함	- 스스로 관리자의 역할을 시작함	- 자녀의 재출발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불안한 마음에 도움을 줄 지 생각하게 됨	-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가족에 있는 기관을 탐색하고 동참	- 자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을 탐색하고 동참	- 자녀의 일기 수일 투옥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 중독을 인정하고 대응방안 마련 - 자녀의 일기 수일 투옥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 보호자와 관리자의 역할	- 중독을 인정하고 대응방안 마련 - 자녀의 일기 수일 투옥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 보호자와 관리자의 역할	- 중독을 인정하고 대응방안 마련 - 자녀의 일기 수일 투옥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 보호자와 관리자의 역할
6	박철형 (2015)	- 도박행위의 패배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 - 오락 또는 투자로만 생각	- 도박행위의 해로움을 경험 - 경제적 환난을 맞이함	- 분노의 활성화, 불안, 수치스러움, 심리적 위상, 실망, 두려움, 좌절, 우울함, 죽음 생각 및 살인에 대한 생각	- 도박문제에 의존 및 아무 변화도 시도하지 않음	- 도박중독 인식	- 다양한 정보 및 공동체적 지지 경험과 같은 새로운 변화 촉진 경험	- 가족의 역할 탐색 - 자신의 문제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7	박희준 (2016)	- 도박행위의 패배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 - 오락 또는 투자로만 생각	- 도박행위의 해로움을 경험 - 경제적 환난을 맞이함	- 분노의 활성화, 불안, 수치스러움, 심리적 위상, 실망, 두려움, 좌절, 우울함, 죽음 생각 및 살인에 대한 생각	- 도박문제에 의존 및 아무 변화도 시도하지 않음	- 도박중독 인식	- 다양한 정보 및 공동체적 지지 경험과 같은 새로운 변화 촉진 경험	- 가족의 역할 탐색 - 자신의 문제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 자기의 삶과 도박문제의 경제 구분 - 이해결 과정 인식

부록 1. 기술연구 질적 통합

(계속 2)

상위개념	가족의 도박사실에 충격을 받음			가족의 도박문제로 고군분투함		도박을 문제로서 인지함		가족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함		가족 자신의 삶을 살아감	
하위개념	부정하기	바다치기	공동의존	정서적 고통	문제해결 시도	정보획득	전문기관 탐색	감시와 감독	지지와 관리	문제전환	자신의 삶 고쳐
이지혜 (2009)	가족의 도박문제에 대해 심각성과 자신의 부정하거나 단지 한계를 느끼면서 실수였다 라고 인정하며 문제를 치부하며 문제를 간과함.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정하며 문제를 치부하며 문제를 간과함.	중독자의 행동 특성을 지속시키거나 조절 시키려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인 관제와 삶의 형태	도박중독자 가족과의 계속되는 고군분투로 인해 분노, 배신감, 죄책감 등 지속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고통	가족의 도박사실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도박중독에 대한 정보 탐색으로 인해 도박이 질병이라는 인식 증진	정비 인식 후 치유를 위해 전문치료 기관 및 단도박 도입을 참여함	대외변제 등을 통해 가족의 도박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의심하고 감시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방안 채택	투명한 재정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 채택	도박중독자의 문제와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삶으로 문제를 전환	도박중독자 가족이 아닌 자신의 생애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실존구조와 연계하는 등 성장을 도모
	- 경제 파탄 - 정신적 고통을 인식하게 됨.	- 고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믿음	- 배신감과 억울함, 분노 등 극한 증오가 표출됨	- 구원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런 무엇을 찾기 시작함	- 단도박 가족 모임에 참여함	- 단도박 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전이되는 변화	- 자선에서 모금과 만나게 됨 - 나의 마음을 보살핌 - 가치관과 태도 전반에 걸쳐 해결에 서 자신과 도박중독자의 공존으로 목표하게 됨				
심전현 (2006)											

부록 2. 실험연구 질적 통합

문제인식		가족 역기능 완화		문제해결 역량 증진		자신의 삶에 대한 역량강화		
개입-유형	인식/이해	상황으로 부티의 분리	부적정서 완화	가족 / 의사소통 기능	제도적 지식	문제해결 기술	문제전환	자기성장
하위개념:	개입 유형 및 방법	가족의 도박문제를 인식 및 병이라는 것을 이해	도박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해소	가족 / 의사소통 기능	채무 / 법적	문제해결 기술 / 역량 증진	도박중독자의 문제와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삶으로 문제를 치환	생애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실존구조와 연계하는 등 성장을 도모
1	한영옥 (2011) 가족교육 프로그램	- 병적 도박의 이해 증가 - 도박 재발 시 대처 방법 에 대한 이해 수 준 증가 - 입원치료 인 식 하락	- 도박문제로 인한 심리적 소진완화	- 도박자에 대한 인행을 의심하고 점 검해야 한다는 의식 감소 - 가족공개 걱정 감소	- 채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혼란 감소			
2	이경희 (2012) 수용전년 치료	- 남편의 문제를 수용하게 됨	- 맥락으로서의 자기: 이는 지금-여기의 경험을 조망하는 자기	- 부적정서와 보호요인 등 큰 변화 없음			- 가치: 배우자의 단도박이 자기 삶의 목 표가 아님.	- 현재로 존재하기: 현재 순간에 접속하며 과도한 판단이 나 평가 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명명하거나 기술 - 전념적 행동: 수용과 알아차림 - 인지적 탈융합: 인정과 받아들임
3	최정빈 (2017) 공정심리기반 음악치료		- 긍정정서, 긍정사고 증가 및 부정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감소					

부록 2. 실험연구 질적 통합

(계속)

허위개념:	문제인식	가족 역기능 완화	가족 / 의사소통 기능	문제해결 역량 증진	자신의 삶에 대한 역량강화
개입 유형	인식/이해	상황으로 부터의 분리	부적절성 완화	제도적 지식	문제해결 기술
자기성장					
	가족의 도박문제를 인식 및 병이라는 것을 이해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분리	가족 / 의사소통 기능	채무 / 법적	문제해결 기술 / 역량 증진
	개입 유형 및 방법				생애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실존구조와 연계하는 등 성장을 도모
4	홍정아 (2013) 행동주의 가족교육	- 대조군보다 우울 및 분노 감소 - 자아존중감 상승	- 대조군보다 향상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음.		도박중독자의 문제와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삶으로 문제를 치환
5	Robert G (2006) 대처기술훈련	- CST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울 및 불안 분노 감소 - CST이 우울 및 불안의 감소를 매개		- 대조군보다 인지 및 행동적 대처 기술 상승	
6	W. H. Boyd (1970) 집단심리치료	- 우울 및 불안, 파괴적 사고 감소	- 결혼갈등 인식 및 의사소통 기능 증가 - 진실성 있는 대인관계 활동 유지	- 더욱 적응력 있는 방어기 술 생성	
7	Jocèl Tremblay (2018) 통합커뮤니티 프로그램	- 도박문제에 커를이 함께 접근함	- 상호 이해를 통한 상호 지지 증가		
8	Tepperman, J. H. (1985) GAM-ANON 및 12단계 프로그램	- 성실한 배우자 콤플렉스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이 됨	- 대조군보다 우울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음	- 배우자와의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 인식 - 도박중독자는 아내를 잃는 두려움과 결혼에 책임 느낀	- 아내가 도박 중독자 보다 실존적 성에 대해 더욱 걱정하였으며 독립하기 위해 노력함

부록 3. 9개 기술 연구의 혼재 방법 평가(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 Quan Nha Hong et al., 2018)

방법	심진현(2006)	이지혜(2009)	김진숙(2011)	김성재(2012)	김호진(2015)	박철형(2015)	김진숙(2015)	박희종(2016)	김호진(2017)
	실문조사	심층면담 질적분석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	심층면담 질적분석	현상학적 연구	심층면담 질적분석	질적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심층면담 질적분석
선별	Y	Y	Y	Y	Y	Y	Y	Y	Y
질문	Y	Y	Y	Y	Y	Y	Y	Y	Y
방법 적절성	-	Y	Y	Y	Y	Y	Y	Y	Y
자료수집 적절성	-	Y	Y	Y	N	Y	Y	N	N
결과도출 적절성	-	Y	Y	Y	Y	Y	Y	Y	Y
결과 해석 적절성	-	Y	Y	Y	Y	Y	Y	Y	Y
자료원천, 수집, 분석, 해석에서 일관성	-	Y	Y	Y	Y	Y	Y	Y	Y
표집 전략 적합성	Y	-	-	-	-	-	-	-	-
표본대표성	N	-	-	-	-	-	-	-	-
도구적절성	Y	-	-	-	-	-	-	-	-
낮은 비응답 편향위험	?	-	-	-	-	-	-	-	-
통계분석 적합성	Y	-	-	-	-	-	-	-	-

주. 해당없음(-), 예(Y), 아니오(N), 알수없음(?)

부록 4. 8개 실험 연구 혼재 방법 평가(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 Quan Nha Hong et al., 2018)

방법	한영옥 (2011)	이경희 (2012)	홍정아 (2013)	최정빈 (2017)	Boyd & Bolen (1970)	Tupperman (1985)	Robert & Neil (2006)	Tremblay et al. (2017)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	혼재연구	대조군 사전-사후 실제	대조군 사전-사후 실제	대조군 사전-사후 실제	대조군 사전-사후 실제	대조군 사전-사후 실제	무실험통제실제	질적연구
선별 질문	Y	Y	Y	Y	N	Y	Y	Y
자료 적합성	Y	Y	Y	Y	N	Y	Y	Y
방법 적절성	-	-	-	-	-	-	-	Y
자료 수집 적절성	-	-	-	-	-	-	-	Y
결과 도출 적절성	-	-	-	-	-	-	-	Y
결과 해석 적절성	-	-	-	-	-	-	-	Y
자료 원천, 수집, 분석, 해석 일관성	-	-	-	-	-	-	-	Y
무선험당적절성	-	-	-	-	-	-	-	-
기저선 비교 적절성	-	-	-	-	-	-	Y	-
처치 후 자료확보	-	-	-	-	-	-	Y	-
블라인드 평가	-	-	-	-	-	-	Y	-
개입유지	-	-	-	-	-	-	Y	-
표본 대표성	Y	-	Y	N	-	N	-	-
도구 적절성	N	-	Y	Y	-	N	-	-
처치 후 자료 확보	?	-	Y	Y	-	N	-	-
혼입 변인 통제	N	-	Y	Y	-	N	-	-
개입 실현 정도	?	-	?	?	-	?	-	-
방법 적절성	-	Y	-	-	-	-	-	-
방법 통합성	-	N	-	-	-	-	-	-
해석 통합성	-	N	-	-	-	-	-	-
비 일관성 해석	-	N	-	-	-	-	-	-
방법론 별 질적수준	-	N	-	-	-	-	-	-

주. 해당없음(-), 예(Y), 아니오(N), 알수없음(?)